



조합 설립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그들 ! 조합원들 폄하하면서 대접까지 받고 싶은가?

2월 22일 김희봉 사무장은 팀리더들 26명 일동으로부터 서신을 전해 받았다. 현재 나주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후배 간의 폭언과 폭행에 관하여 하관래 조사통계부장의 해고를 비유하여 제 2의 희생자가 나오는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만 두길 바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박근서 지회장과 면담요청을 했다. 서면에는 김관태 팀장과 장갑수 파트장 이름도 있었다. 거짓 증언으로 해고자를 만들어낸 그들이 해고자를 걱정하는척하며 조합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하관래 부장에게 해고 누명을 씌운것도 부족해서 김관태 팀장과 장갑수 파트장이 **하관래 부장과 손창현 조합원을 상대로 형사고발하여 24일 출두하라는** 소식까지 전해들었다. 박근서 지회장은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며 안타까워 했다.

우리 조합은 그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예전에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줄 것이다.

그런데 선후배를 배신하고 조합을 탈퇴해 자본의 그늘 아래로 숨어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그들이 이제와서 선후배 관계를 들먹거리며 기본 예의를 따지고 있다.

사실 관계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써놓은 듯한 이런 글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오고 있다.

박근서 지회장은 수 개월전 박원용 본부장의 첫 번째 전략으로 노/사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소식지에서도 밝힌바 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 되었다. 현재 갈등은 대부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이런 편지로 자신들을 선량한 피해자인양 포장하는 것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조합이 창립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조합원이 늘어날 때는 함께 힘을 모아 자본과 싸우자고 큰소리쳤던 그들이었다. 헌데, 얼마 지나지않아 개인의 이익을 찾아 자본의 충복이 되어 이제는 조합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음이

애석하기 그지없다.

또한 팀리더 일동은 하관래 조사통계부장의 상사 폭행에 관하여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지만 폭행을 목격했는지, 그에 따른 증거가 있는지 묻는 김희봉 사무장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였다.

물론 **뭇뭇하지 못한 행동으로 선후배들에게 욕을 먹는 현 상황이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들어 중단해달라는** 서신을 보내왔음은 알지만 그들이 정녕 선배 사원으로서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조합과 회사의 대립상황을 자신들의 출세의 기회로 삼고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노동탄압에 선두에 선 저들이 불의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는 수작들이 계속된다면 조합은 그 불의를 꾸짖을 것이며 그들의 폭언과 인격 모독을 참아내지 않을 것이다.

조합은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마치 조합이 그들에게 패를 끼친 것만양 말을 한다.

조합이 생겨서 임금이 많이 오르고 각종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과거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들이 빨리 정리되길 위한다면 조합의 지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장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직도 노예근성으로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을 보면 애처로울 지경이다. **이들이 보내온 서신은 한국쓰리엠지회 사이트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물러섬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본을 추종하는 저들은 배운적이 없을 노동자의 단결과 동지애로 하나되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쓰리엠 자본과 싸워나갈 것이며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 거센 투쟁으로 진정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용역 강패들, 조합 간부 사진이나 쳐다봐

조합원 신변 위협하며 다짜고짜 욕설 퍼부어...

화성공장 경비실 옆 휴게실을 보안 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출입을 폐쇄시켰다.

유리창 전체를 새까맣게 가려놓아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조차 없다.

군사지역도 아니고 경비실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휴게실이 보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처음에는 용역 강패들의 쉼터 정도로 생각했다. 허나 실상은 단순한 휴게공간이나 대기공간이 아니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구사대들의 작전 본부였던 것이다.

그 안에는 조합 간부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조합 간부들의 사진과 얼굴을 익혀두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특별한 관리와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몇일 전에는 노동조합 간부 한명이 용역 강패들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도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용역 강패들이 먼저 다가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던 것.

해당 간부는 쉬는 시간이라 담배 한 모금 피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도발해오는 경비들의 태도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수준이다.

과연 용역 강패들이 조합 간부들과 무슨 개인적 앙심이 있어서 도발과 욕설을 해대는가?

조합과 경비실간에는 개인적이던 공적이던 마찰이 일어날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 모두 조합을 탄압하려는 회사의 전략과 그 지시를 받은 경비실 보안 구역에서 계획된 전술인 것이다.



이런 야비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회사이기에 조합원들 신변을 위협하면 그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적대응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다.

산업재해은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를 엄중 처벌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2009년 10월 2건의 산업재해은폐를 한국쓰리엠 대표이사 명의로 고소장을 발행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하였으며 사용자

측의 인정으로 종결 처리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잘못된 관행에는 반드시 고쳐나갈 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쓰리엠지회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의 외침처럼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회사의 잘못된 관행과 사상을 바로 잡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될것임을 분명히 해둔다.